

박지원 “새만금 RE100 산단, 전북 대도약 핵심”

박지원 후보 부안산단 농성장 방문
법군민추진위 현장 목소리 청취
“산단 조성·지산지소 확립해야”
간담회에서 새만금미래산업육성 논의



<사진=박지원 후보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군산시·김제시·부안군)는 13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진행 중인 부안 RE100 국가산단 유치 농성장을 방문해 부안 RE100 국가산단 부안 유치 법군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농성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단지 조성 과정에서 입지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 소외 없는 균형 있는 추진,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법군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집중투쟁을 이어가며,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이 전북의 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지역별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은 이미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들어섰고, 현대 새만금 9조투자가 증명하

듯 글로벌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됐다”며 “RE100은 선연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이고, 새만금은 그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산업이 들어서고, 기업이 전력을 소비하며, 그 이익이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로 돌아가는 지산지소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라며, “새만금권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 생산기반, 산업용지를 함께 갖춘 대한민국 RE100 산업의 최적지인 만큼, 생산-실증-첨단산업이 연결되는

RE100 산단 조성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는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새만금 비전 현장간담회에도 함께해 새만금 사업 지원 방향과 전북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차 9조 원 투자 현실화, 피지컬 AI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조기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혁신밸리, 2차전지 산업 강화, 첨단 케미컬 기반 반도체 실증·패키지 공장 유치, K-푸드 수출 전진기지 구축,

새만금 공항·인입도로 등 SOC 조기 완공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박지원 후보는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이자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라며 “현대차 9조 원 투자 현실화와 RE100 산단 전북 유치는 이재명 정부가 전북에 열어준 대도약의 기회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전략 과제”라고 말했다.

이러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전북에 안겨준 대도약의 기회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원팀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완벽하게 승리할 때, 새만금 RE100 산단 전북 유치와 전북 미래산업 도약도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즉시 RE100 산단 전북 유치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라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되고, 그 성과가 김제·부안·군산, 부안·김제·군산, 군산·김제·부안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대기업 15개 유치... 50조 시대 열겠다”

1호 공약 “50조 투자유치 달성”
새만금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정당보다 전북, 조직보다 실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 후보는 13일 “제1호 공약으로 향후 4년간 대기업 15개를 유치해 50조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전북은 성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27조 투자유치의 기적을 넘어, 전북 성공시대를 더 크게 확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선 8기 이전, 과거 10년간 연평균 1.7조원 수준이던 투자유치가 민선 8기 들어 연평균 7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LS, 두산, 현대 로템 등 대기업이 전북을 선택했고, 피지컬AI·이차전지·바이오·방산·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북 산업지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협약은 전북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며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이 변혁을 맞고 있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본격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유치가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선 9기 50조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는 단순한 숫자 목표가 아니라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경제 영토를 물려주겠다는 약속”며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공장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돌아오며, 지역상권이 살아나 아이 키우며 살아갈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민선 8기에 뿌린 희망의 씨앗이 민선 9기에는 도민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만들겠다”며 “정당보다 전북, 조직보다 실력이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전북 성공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최종 점검

전담TF 2차 점검회의 개최
선불카드 58만여장 확보 추진
읍면동 보조인력 450명 배치

전북도는 13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확보부터 지급 수단, 현장 대응, 도민 편의 지원까지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은 ▲국비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 및 시군 자금 송부 현황 ▲선불카드 58만 6,000여 장 확보 계획 ▲사용처 확대(기준 11만 4,986개→11만 6,383개, 주유소·하나마트·로컬푸드 추가) ▲읍면동 보조 인력 450명 배치 ▲이의신청 처리 시스템 교육 ▲은·오프라인 대민 홍보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방안 등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으로, 총 121만 명에게 2,138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별 지급액은 전주·군산·익산시·완주군 주민 15만 원, 정읍·남원·김제시 주민 20만 원,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주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1만 2,000여 명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여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온라인 쇼핑몰과 유희·사행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조 인

력 450명을 배치해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받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된다.

1차 지급(4월 27일~5월 8일)에서는 대상자 16만 1,250명 중 14만 8,773명이 신청해 92.3%의 지급률을 기록, 전국 평균(91.2%)을 웃돌았다. 875억 원이 집행됐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차 지급에서도 누락자가 없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도민 누구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현장 지원체계를 적극 운영해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입실군 공고 제2026-543호

2030년 입실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2030년 입실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입실군 계획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입 실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2030년 입실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공간적범위 : 입실군 행정구역 전역(596.89km²)
 - 내용적범위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2. 열람내용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 53개소(도시지역 13개소, 비도시지역 40개소)
 -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14개소(신설 9개소, 변경 5개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2개소(치즈농협지구, 향교지구 변경)
 - 군계획시설 : 55개소
 - 도 로 : 18개소 (신설 8개소, 변경 10개소)
 - 주 차 장 : 4개소 (신설 3개소, 폐지 1개소)
 - 자동차정류장 : 1개소 (변경 1개소)
 - 공 원 : 3개소 (변경 1개소, 폐지 2개소)
 - 수도공급설비 : 2개소 (변경 2개소)
 - 시 장 : 1개소 (폐지 1개소)
 - 학 교 : 2개소 (변경 1개소, 폐지 1개소)
 - 공 공 청 사 : 3개소 (변경 3개소)
 - 문 화 시 설 : 1개소 (변경 1개소)
 - 하 천 : 19개소 (신설 19개소)
 - 수질오염방지시설 : 1개소 (변경 1개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 2026년 5월 4일 ~ 5월 26일(22일간)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실군청 건설과(☎063-64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

14~15일 등록...21일부터 선거운동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이를 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

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방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

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착수

전북도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지정된 도내 공공형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도내에는 총 836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공공형어린이집은 108개소로 지

역 공공보육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공공형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다.

심사는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군 현장 확인 및 평가, 도 최종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은 자체평가와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시군은 현장 확인과 평가표 작성 후 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도가 최종 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장정철 기자

평가 항목은 ▲평가인증 유지 여부 ▲행정처분 이력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보육교직원 전문성 ▲정원충족률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급식·간식 관리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 항목을 포함한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재지정된다.

재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이 지속 지원된다. 교육환경 개선비는 민간 어린이집 250만 원, 가정 어린이집 400만 원 규모로 지원되며 교재·교구 확충과 보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시민 인명피해 제로·재산피해 최소 '총력'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 우시장부서장 등 총동원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자연재난에 대비한 특별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25개 관계 부서장, 35개 동 동장 등은 1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관련해 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단계별 상황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동 주민센터 중심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장에게도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동 단위까지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해 초기 대응력을 높였다. 또 인명피해우려지역 114개소를 지정·관리해 산사태·하천·지하공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도 완료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25개 관계 부서장, 35개 동 동장 등은 1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여기에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정비와 마무리를 하고, 배수펌프장과 우수지 등 주요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운전을 통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폭염 대책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 체계 개편에 발맞춰 9월까지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 체계에서 체감온도 38℃ 이상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3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했다. 또, 밤 최저기온 26℃ 이상 시 운영되는 '열대야주의보' 기준에 맞춰 야간 시간대 시민 안전을 위한 예찰 및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열대야주의보 시에는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신체적 취약계층 1만5857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417명)를 통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시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냉방바우처를 지급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무더위쉼터 운영, 건설 현장 및 영농 작업자에게는 폭염 취약 시간대(오후 2시-5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 구역,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현대 전북대병원 어린이 환우 응원

보호자들에 위로 메시지 전해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티스 FC(단장 이도현)가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 병동을 방문해 환우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응원 행사를 13일 진행했다. 전북현대모티스FC '환아와 보호자' 응원은 힘든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 환우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아이들 곁을 지키며 헌신하는 보호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병동에는 전북현대 인기 마스코트인 '나이트'와 '썬치'가 직접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스코트들은 병실 곳곳을 돌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환우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전북현대 측은 아이들의 편안한 휴식을 돕기 위해 구단 마스코트 캐릭터가 담긴 '썬치 필로우'를 선물로 전달했다. 오랜 시간 병간호에 지친 보호자들에게도 카네이션과 함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지역 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역 고객주차장 5월 19일 일시 운영 중지

타워크레인 해체로 일시 중지

전주역 증축 공사로 인해 전주역 고객주차장운영이 오는 19일 일시 중단된다. 전주시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전주역 증축공사에 따른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으로 인해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17시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전주역 증축역사

우측과 선상연결통로 공사 등에 사용된 타워크레인 장비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주역 이용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작업은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역 고객주차장을 운영 중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장 운영 중지 때 다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차장 운영 중지로 인한 차량 혼잡 등에 대비해 당일 주차장 입구에 현장 안내 요원을 배치해 동부대로 교통신호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역 주차장 운영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당일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달라"면서 "공사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역사 개선사업은 지난 2011

년 KTX 개통 후 지속 증가하는 철도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증축(지하 1층-지상 3층)과 주차시설(602면) 및 광장 교통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증축역사 우측과 선상연결통로, 후면주차장(382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6월 준공이면 임시 사 용이 가능해진다. 공사는 오는 2027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16일~7월 31일 시민 1800명 대상 지역맞춤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

전주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여부를 조사한다. 건강생활 조사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실시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 4조에 의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서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올해부터는 조사 규모가 기존보다 두 배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폭넓게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이며,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

기반 전자조사 방식(CAPI)을 활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의료 이용, 예방접종 및 걷진 생활제한 및 삶의 질 등 총 18개 영역 168개의 문항 등이다. 조사를 통해 산출된 건강통계자료는 지역 보건 정책 수립과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이듬해 2월 지역사회

회건강조사 누리집(Chs.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조사원은 조끼와 전주시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착용하고 방문하고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조사 과정에서의 금전적 요구 및 조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원 사칭 및 특이사항 발생 시 112 신고"를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강화

폐기물 관련시설 관계자 대상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는 13일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정부의 '2035년까지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 재설정'에 대한 정보제공 등 폐기물 관련 시설 담당 공무원 및 위탁사 관계자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각종 활동자료 준비 및 장비 점검 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2025년도 사업장별 운영 결과(안) 및 대응 방안 △4차 계획 기간(26~30)의 연도별 감축목표 및 운영 방안 △주요 이슈 사항 등이다.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듬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4개 환경기

초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노후 기계·설비 고효율 설비로 교체 △폐열 회수 △고효율 전등(LED) 교체 △시설 운용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함께 시는 사업장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배출권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해 왔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불법 전단지 '특별집중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은 일상생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불법 전단지(대부업, 의약품, 성매매 등)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부분별하게 유흥가나 공공 장소에 뿌려진 여러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외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전북경찰청에서도 국정기조 방향에 맞춰 불법전단지 집중 단속으로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속은 상습 살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비롯해 단순히 전 단지를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단지 뿌리는 사람 △제작과 의뢰를 맡긴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수 사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녹조원인 야적퇴비' 특별점검

야적퇴비 집중관리 녹조 사전 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여름철 녹조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담호와 옥정호 상류 하천변의 야적퇴비 보관상태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야적퇴비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빗물에 의해 퇴비의 인 등 영양물질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름철 녹조 발생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 용담호와 옥정호 상류 하천변에 대해 야적퇴비 현장조사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감시를 실시해 총 121개(공유지 44, 사유지 77)의 퇴비가 야적된 것을 확인하여 수거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퇴비의 영양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토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는 등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선정작 전시

5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뜻밖의 미술관' 무료 관람

전주시 '2026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사업에 선정된 지역작가 10명 작품 전시 프리뷰(미리보다)전이 개최된다. 시의 프리뷰전은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도송동 '뜻밖의 미술관'에 마련되어 운영된다.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사업은 지역작가들에게는 새로운 발표 기회와 함께 문

화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사업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상생형 문화예술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시는 미술관과 갤러리 중심의 전시 구조를 벗어나 △가게와 거리 생활 공간으로 예술의 접점을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는 올해 사업에 선정된 △김누리 △김보미 △김예원 △김지우 △노병득 △문민 △염수현 △이보영 △이홍규 △장우석 등 지역 작가 10명의 작품이 사전오픈전 형식으로 꾸며진다. /김영태 기자

특히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시되거 전의 선정 작가 작품 세계를 먼저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삼았다. 따라서 시는 작품이 지역 상권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뜻밖의 미술관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기간 이후 선정 작품들은 전주 지역 상생가게 10곳으로 옮겨져 시민들과 만난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공공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혁신제품지정 및 공공조달 연계 지원 내달 8일까지 접수

전북도와 익산시, 정읍시, 주관기관인 전북TP는 '2026년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현장에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직접 설치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제품 지정, 공공조달 연계, 민간투자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트랙과 스케일업 트랙으로 구분해 총 16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

업당 최대 6천만원 규모의 실증 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조달연구원(원장 이상윤)과 연계한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공공 구매 상담회, 혁신제품 추천 연계 등 공공조달 진출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 소재 창업·벤처기업이며,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특허·실용신안·NEP·NET 등 기술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테스트베드형 △공공수요형 △기업제안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테스트베드형의 경우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환경·건설관리 기술 등의 현장 실



증을 지원하며, 공공수요형은 순창군이 제안한 '농어촌 마을 버스정류장 택시 콜 시스템 구축'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전북테크노파

<사진=전북테크노파크>

크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 시상

경영 성과 우수 3명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역 농·축협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둔 조합장의 공로를 기리며 도내 3개 농협에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을 시상했다.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상태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 △판매사업 등 경제사업 활성화 정도 △조합원 복지 증진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업적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025년 종합경영평가 경영우수, 경영향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관농협(조합장 김기동), 변산농협(조합

장 김병식), 화산농협(조합장 김중재) 등 3개 농협이 우수조합장상 표창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성훈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조합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지역 농·축협이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농심'에 진심, 든든한 전북농협을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매년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관내 농·축협의 자립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농·축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체계 구축

'아그로믹소' 기술력 인정 연구 핵심 플랫폼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농촌진흥청 나비스 2호기를 이용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통합 분석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학술지에 등재되며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유전체 등 농생명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실의 전산장비로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신속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슈퍼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려면 분석 도구를 내려받고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연구자나 육종가의 슈퍼컴퓨터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슈퍼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를 개발하고 통합 분석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자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아그로

믹소를 실행한 후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 파일을 클릭하면 농촌진흥청 나비스 2호에서 이를 고속으로 분석해 결과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별도의 분석 도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화면 구성을 간소화해 초보자나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제시해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그로믹소는 연구자들의 슈퍼컴퓨팅 자원 접근성을 높인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을 받은 바 있다.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 이태호 센터장은 "통합 분석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연구자들이 쉽게 슈퍼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농생명 특화 인공지능 기술과 멀티모달 기술을 아그로믹소와 연결해 농생명 데이터 기반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3년 슈퍼컴퓨팅 기반 체계를 구축해 일반 연구실에서는 5년 걸릴 유전체 분석을 1개월 만에 완료해 연구자에 제공한 등 연구 가속화를 지속해서 지원해 왔다.

/정소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보상 본격 추진

보상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보상전문기관 지정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보상업무에 본격 수행하게 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2일 공포됨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

축해 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상전문기관 지정으로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 위탁기관 선정에 선택권이 넓어져, 토지 보상 위탁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적측량·공간정보 수행 체계 등 핵심 역량을 보상업무 전 과정에 융합·적용해 토지보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강점인 드론영상 기반 토지·물건조사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신속성을 높이고, 지적정보와의 연계로 보상자료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 방식보다 지적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이



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적·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지역소외계층'에 나눔 실현

'작은자매의 집' 찾아 사회공헌활동 펼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3일 익산시 소재한 '작은자매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며 나눔의 온기를 전했다.

이곳은 1986년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과 건강관리, 평생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나눔은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서부지부, 그리고 수출을 선도하는 중견·중소기업인들의 모인인 글로벌CEO클럽 전북지회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들은 시설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샴푸, 수건 등 700만원 상당의 필수 생활용품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당 시설을 다시 방문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감으로써 지속적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글로벌CEO클럽은 수출에 주력하는 중견·중기 약 1,000개사의 회원사와 15개 지회로 구성된 전국 조직이다. 이 중 전북지회는 2018년에 출범했으며,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정우화인(주)(대표 김유석)를 회장으로 20개사의 회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인 네트워킹 활동으로 회원사 간 수출/경영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수출 증대 및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유석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지난해 맺은 작은자매의 집과의 인연



을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중진공 전북지역본부>

행에 참여하게 돼 기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정신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11% '도전 루틴 적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MZ세대의 '갓생(God+生)' 트렌드와 소액 재테크 열풍에 맞춰, 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최고 연 1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전 루틴 적금'을 13일 새롭게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기본금리 연 1.0%의 적금 상품으로 매일 1만원 적립할 때마다 0.1%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1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전북은행 적금이 없는 고객이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1일 납입한도는 1만원이다.

기간은 31일 이상 100일 이하로 100일 동안 매일 입금할 경우 기본금리 1.0%에 우대금리 10%가 더해져 최대 연 1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복되는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저축 습관과 나만의 '갓생 루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매일 푸쉬 알림을 통해 스스로 루틴을 기록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매일 연속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납입한 횟수만큼 우대금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로, 고객이 부담 없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참여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매일 작은 실천으로 나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가는 성취감과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태 기자

황호진 선거 조직, 천호성 지지 선언

“일방적 단일화 분개... 황호진 완주 의지 없고 밀실 야합 의혹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남호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황호진 전 예비후보의 선거 조직이 천호성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전 후보 선거 조직은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가 어떠한 설명과 혐의도 없이 이남호 후보와 단일화를 강행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황 후보가 완주하겠다고 약속해 조직원들이 올인했으나, 최소한

의 정치적인 도의도 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가버렸다”며 “이에 14개 조직을 결합해 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조직을 꾸려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황 후보의 완주 의지도 의심되기 시작했다”며 “선거 조직의 몸집을 불리는 데만 집중했을 뿐,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행동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조직은, 황 전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를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의 판단”이라며 “조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하게 간 것에 대해 무언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호진 캠프 권철주 전 선



거사무장은 “황 전 후보는 완주 의지는 분명했는데 사실상 돈 문제가 가장 투항이 맞다”고 설명했다. <사진=전북타임스> /최성민 기자

‘전북 청소년박람회’ 익산서 개최

20~21일, 128개 부스 진열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오는 20~21일 이틀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예술의전당,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의 상상이 전북의 미래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도내 청소년과 도민 등 1만여 명이 대거 참여하는 전북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다. 익산 14개 학교에서도 2,700여 명의 청소년이 동참한다.

체육공원 행사장에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8개 분야, 총 128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진열된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주도형 축제’라는 점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선발된 익산의 대표 청소년 동아리 10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보컬, 댄스 등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는 5월의 따뜻한 봄 날씨를 감안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전역에 감각적인 야외 쉼터와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전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고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시민단체 “선거권 박탈된 서거석, 불법 선거운동” 고발

이남호 후보 지지 호소 등 불법 선거 개입 정황 확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서 전

교육감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해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상태다.

단체 측은 서 전 교육감이 이남호 후보와 함께 현장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한 구체적인 증거인 녹취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는 서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반납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 약 12억 5000만 원을 현재까지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의무이행을 촉구했다.

본지는 고발 내용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서 전 교육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성민 기자

김제시, 내달 초여름 음악축제 열린다

13일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개최

김제시가 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 일원에서 ‘모악의 녹음, 음악으로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모악산의 싱그러움 자연 속에서 음악을 통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6월의 짙어지는 녹음과 산사(山寺)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 메인 무대인 금산사 잔디광장에서는 대중가요를 비롯해 인디밴드, 댄스 공연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쉼 없이 이어지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 등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모악산의 초록빛 풍경 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6월 개막

군산시의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더욱 뜨거워진 분위기와 한층 풍성해진 콘텐츠로 돌아온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군산 근대역 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군산맥주와 블루스 음악, 야간관광과 지역문화가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맥주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군산맥주 4개 업체와 중국·일본·미국·대만 등 6개국의 교류도시의 수제맥주 업체 5개소가 참여한다. 여기에 군산맥주를 사용하는 전국 단위 수제맥주 양조장 6개 업체까지 함께해 총 50여 종의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도 한층 더 화려해진 라인업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총 17개 팀이 3일간 축제의 밤을 뜨겁게 채운다. 국내외의 13개 블루스 밴드를

비롯해 강산에 밴드가 12일, 김중서 밴드가 13일, 김경호 밴드가 14일 메인 무대에 오른다. 또한 한국 블루스 음악의 대표 그룹인 신촌블루스도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동안 군산비어포트에서도 주무대 공연을 생중계로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사장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6천원이다. 입장객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5천원이 지급돼 행사장 안팎과 원도심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지역 수제맥주 산업과 문화·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군산만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더욱 화려해진 공연과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군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남원시 ‘월광포차’ 16일 운영 시작

내달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원시가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2026 상반기 월광포차’를 오는 1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월광포차는 춘향제 이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상권의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연과 먹거리,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운영된다.

행사는 신관사포 부임행차와 취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94 노래방’, 신나는 디제잉 공연 등이 구성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매주 세대를 아우르는 실력과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남원=김종원 기자

출연진은 △5월 16일 김기태를 시작으로 △5월 23일 김중서 △5월 30일 임정희 △6월 6일 양파 △6월 13일 테이 순으로 이어지며, 남원의 밤을 특별한 감동과 환호로 채울 전망이다.

광한루원의 고즈넉한 야간경관과 어우러진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월광포차만의 매력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주말 야간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월광포차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남원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도시 남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본부 공모사업 심의위원 인력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 문화예술본부 공모사업 심의위원 인력풀 상반기 공개모집’을 추진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문화예술분야 신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심의제도의 전문성·다양성·균형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2일간이며, 모집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문화

예술 전 분야이다.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비평·연구·기획·교육·언론 분야 또는 문화정책·예술경영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인력풀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jbct.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창작지원팀(063-230-7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

군산시,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사진신고기간 운영

군산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사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취득하거나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 또는 동물의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사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군산시는 사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아직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사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모현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12월 개관

익산시 모현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창작하는 경험 중심의 혁신 공간인 '내일의 어린이실'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히 책을 빌려 읽는 고지식한 열람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창작, 놀이와 휴식이 완벽히 공존하는 미래형 어린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경계를 허문 '자연 친화적 설계'다.

도서관과 맞닿은 모현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실내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를 연계 조성한다.

특히 8~13세 어린이를 위한 독립된 전용 공간인 '0813 작업실'이 별도로 들어서 눈길을 끈다.

이곳은 아이들의 관심사와 호기심을 철저히 분석해 엄선한 2,000여 권의 테마 큐레이션 도서가 비치된다.

또한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릿속 상상을 곧바로 손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창작 도구와 다채로운 재료들을 상시 제공해 아이들만의 아티스트로 꾸며진다.

시는 이달 중으로 아이들의 의견이 녹아든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달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하반기 중 큐레이션 도서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해 오는 12월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간부 공무원 및 승진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정읍시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승진자 등 177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돕는 '2026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한유나 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다. 강의는 '사례로 보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속 갑질 예방 규정' 등 공직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과 갑질 판단 기준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실천 중심' 교육에 역점을 뒀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해충돌과 갑질이 없는 깨끗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섬유산업 방산 전환'

'메이크핑즈'와 향토 기업 제조 기반 결합 협력 방안 논의

익산시가 침체된 지역 전통 섬유산업의 돌파구를 '방위산업'에서 찾으며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3일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주요 섬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산업 방산 전환 및 상생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기도에서 익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섬유·방산 전문기업 '메이크핑즈'와 함께 지역 향토 섬유업체들에게 군 보급품 등 방산 관련 사업의 비전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메이크핑즈 측은 군장류와 특수 보호복 등 최신 방산 섬유 제품의 시장성과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

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방산 전환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업체들과 함께 전통 섬유 기술을 방산 기술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전 기업이 가진 국방 조달 부문의 노하우와 지역 향토 기업들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결합해 익산에 견고한 방산 클러스터(산업 집적지)를 구축하고, 상생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보조사업 대상업체들이 기존의 단순 의류나 원단 제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군수품 및 방위산업 분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이 같은 체질 개선 전략은 탄소섬유와 관련한 정부 대형 공모사업 선정과 맞물려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최근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사업' 공모

에 자율형 제조 AI 활용 탄소복합재 순환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2028년까지 3년간 총 93억 원(국비 65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항공기나 풍력발전기 날개 등에서 나오는 폐탄소복합재를 회수·재활용하고, 이 부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 AI 기반의 자율형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ECO융합섬유연구원 등과 협력해 첨단 가공 장비 8종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인증 등 기술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유망 이전 기업과 기존 지역 기업이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며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지역 섬유업체들이 방산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평가 장관 표창

전국 상위 6위 달성·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전국 시 단위 평가군 상위 6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적극 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개선과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관 표창은 우수 기관 가운데서도 추진 실적과 성과가 탁월한 상위 지자체에 수여해 의미를 더한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목표로 다채로운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적극 행정 안내서(매뉴얼)와 지침(가이드라인) 제작부터 우수 공무원 선발과 혜택(인센티브) 부여, 관련 공무원 보호와 지원,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에 힘썼다.

또한 올해는 시민 불만 해소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들이 법적·절차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갑토리', '갑·맥' 상표 등록

축제 연계 등 도시브랜드

관광 콘텐츠 육성 본격화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자원인 갑오징어를 활용해 개발한 캐릭터 '갑토리'와 복합 브랜드 '갑·맥'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도시브랜드와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등록으로 '갑토리'와 '갑·맥'은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으며,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축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등록 대상에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등 관련 시설물과 갑오징어 가공식

품, 수산물가공업, 문화축제 및 진행업 등이 포함됐다.

'갑토리'는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갑오징어를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형상화한 캐릭터다. 군산시는 갑오징어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캐릭터 개발과 상표·디자인 출원을 추진해 왔다.

'갑·맥'은 갑오징어와 맥주를 결합한 브랜드다. 지난해 군산 비어포트에서 열린 '시월의 마지막 밤, 갑·맥 파티'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갑오징어가 먹거리와 축제, 야간 관광을 잇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군산시는 이번 상표·디자인 등록을 계기로 갑오징어 자원 조성과 회복, 브

랜딩 개발, 상품화, 축제·관광 연계,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갑오징어 도시 군산'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갑오징어 가공식품과 기념품 등 관련 상품 개발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 프로그램,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 항구도시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발굴해 수산물 소비 확대와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갑토리와 갑·맥 상표 등록은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갑오징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구축과 고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 농촌관광, 관광객 사로잡는다

농식품부 주관 공모 선정

익산시가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를 앞세워 체류형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지역 농촌관광 경영체 3개소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여행객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3개 농촌관광 경

영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35개소를 선정했다.

익산에서는 △밀새싹힐링팜 왕궁과파머스의 '통밀·밀새싹 건강업(UP) 식도락 여행' △달빛소리수목원의 '금목서·은목서와 떠나는 웰니스 여행' △성당포구마을영농조합법인의 '미니 향아리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촌의 자연환경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류형 농촌관광 기반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1만3천여 필지 정리

군산시는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전체 필지의 13.5%에 해당하는 68개 지구, 3만5,499필지를 지정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21개 지구, 1만3,217필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옥도면 연도리 7번지 일원 옥도면도지구 140필지 △옥도면 비안도리 2-1번지 일원 옥도비안도지구 261필지 △옥산면 쌍봉리 244-15번지 일원 옥산돌머리지구 549필지

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전북특별자치도 제2026-135호)했다. 해당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진행되며, 토지 면적이 증가할 경우 조정금이 부과되고 감소할 경우에는 조정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2개 감정평가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축 문제를 해결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주요 사업 반영 대응 집중

익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부처 예산안 편성이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요 사업의 부처안 반영을 위한 막바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13일 최재용 부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집중 건의 활동을 펼쳤다.

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조성된 대한민국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기반

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둔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반영을 요청했다.

시는 부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까지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사업들이 정부 부처안에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집중 건의 활동을 펼쳤다.

최재용 부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 점검

정읍시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 안전 점검을 전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공장 시설, 공사 현장, 어린이집, 농산물 도매시장 등 총 4곳이다. 건축, 전기, 소방, 산업안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함께해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와 위험 요인을 점검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와 전기, 소방 설비 운영 실태, 작업 환경 안전 관리 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전문 점검 장비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맨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고치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26년 집중 안전 점검'을 펼치고 있다. 재난과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벌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험 요인을 꾸준히 관리하고 해소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고창군, 군민 맞춤형 복지 확대 2(題)

취약계층에 벽부등 설치 추진

고창군이 희망나눔캠페인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 가정을 밝히는 벽부등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고창군은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로부터 인센티브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사랑의 벽부등'은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며,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해 진행된다. 각 읍·면별로 마을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1~2개 마을을 선정하고, 세대 내 필요한 위치에 벽부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을, 하반기에는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이 해당된다.

고창군은 △취약지역 및 대상 마을 선정 △설치 희망자 조사 △물품 일괄 구매 및 배부 △읍·면별 자체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 '호응'

고창군보건소가 지난 12일 예비부모 및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보호자를 고려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사고 유형별 초기 대응요령 △이물질로 인한 기도폐쇄 시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응급처치 강사의 지도 아래 반복 실습을 진행해 참가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부모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보호자가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보건소는 해당 교육을 상·하반기 정기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명장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내달 12일까지 공개 접수

김제시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김제시 명장' 후보자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8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명장'은 지역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패션, 공예, 제과·제빵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우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자를 1명 이내로 선정한다. 시는 지난 2023년 제1호 명장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명의 명장을 배출했으며, 올해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4호 명장' 1인을 선발해 명장의 맥을 잇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시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명장 선정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자들의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거쳐 김제시 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2026년 김제시 명장' 신청은 읍면동장 및 각 업종별 협회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우편접수 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 아산면 지사협, 어르신 '청춘 힐링 나들이' 성료

고창군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허영삼, 공공위원장 정재택)는 지난 12일 구암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 우울증 예방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꽃보다 청춘 힐링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겪기 쉬운 고독감과 스트레스를 명상과 산책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인근 명상원을 방문해 정적인 명상으로 내면을 돌보고, 편백숲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등 정서적인 위로와 휴식을 만끽했다.

허영삼 아산면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기쁨을 일구오신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세월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번 나들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앞으로도 세심한 정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마음까지 건강한 아산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특별교부세 20억 원 확보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부안군이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예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표행정에 집중한 결과 특별교부세 20억원

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 2건에 14억원, 재난사업 2건에 6억원이다.

사업별로는 △현안 -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억원, 백산 회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재난 - 줄포리 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원, 변산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2억원이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군 주요 당면사업 및 군민의 안전에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고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산사태 재난 대비 현장 점검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 상시 운영

김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지난 11일 산립 재난에 취약한 주요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밀집된 금구면, 금산면, 진봉면 중 특히 민가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정호근 도시건설국장

과 산림복지과 공무원, 그리고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산립재난대응단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단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 체계가 확립돼 있는지 확인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내 토사의 침식이나 사면 붕괴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시청 산림복지과에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를 신속히 발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산사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정적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호근 도시건설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께서는 재난 문자 수신 시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피소로 즉시 대피하는 등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예술회관, 역대 최대 국·도비 '성과'

7억3천7백만원 확보... 문화행정 경쟁력 입증

부안예술회관이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인 국·도비 7억3천7백만원 확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등 굵직한 중앙·광역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이뤄낸 결과로, 부안예술회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공격적인 예산 확보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부안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예산을 따오는 공연장', '군민을 위해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문화 플랫폼'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군비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더 크고 더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2026년 공연 라인업 역시 역대급이다. 이날식, 전유선, 양방언, 장사익, 임현재, 인순이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고, 발레·



뮤지컬·오페라·재즈·해외오케스트라 초청공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전북 브랜드공연, 품의예술단 플러스 시범사업 등 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사업까지 더해져 '보는 공연'에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연'으로의 확장도 본격화된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부안예술회관이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으로부터 기획력·집행력·콘텐츠 경쟁력 모두를 인정받았다는 공식적인 결과물이다.

<사진=부안예술회관>
특히 농산어촌도시의 공연예술이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서 연이연 선택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번 결과는 부안군 문화행정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부안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7억2천7백만 원 확보는 단순한 예산 유치기 아니라 군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들려드리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수준 높은 공연을 지속 유치해 군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최고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안=은봉기 기자

부안군,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대피 및 대응 요령 숙달

부안군은 13일 '2026년 5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훈련은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공습 경보를 발령해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들이 계단을 이용해 지하 1층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피 후에는 국민행동요령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유관기관인 제8098-기동대의 협조로 방독면 착용법 등을 교육해 화생방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

부안군 관계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공습 상황에서 군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해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들이 계단을 이용해 지하 1층 대피소로

고창식품산업, 매출·고용 성과 '우수'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최종 평가에서 수혜기업 매출 90억원, 고용 45명 창출 성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지역 식품산업 육성의 전조지킴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산업 기여도와 기업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연구원은 고창의 풍부한 농식품 자원과 관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제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연구원은 그동안 △차별화 전략 구축 △유관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관광상품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다각적인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고창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해물떡(서재필 대표)

의 고구마젤리 △사일당푸드(조해주 대표)의 고창수박떡 △더울은협동조합(홍의민 대표)의 장어홍삼보감 등이 시장에 출시돼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해당 사업의 후속사업 선정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관내 식품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한 차원 높은 밀착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생기 연구원장은 "이번 '우수' 판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을 믿고 함께 한 관내 식품기업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지원군이자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세정과, 고추농가 일손 돕기 펼쳐

김제시는 세정과가 13일 올해 초 예초작업 중 손을 다쳐 영농일정이 지연된 진봉면 소재 고추농가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해당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손을 크게 다쳐 영농일정이 지연된 농가의 작업을 돕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령의 농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세정과 직원들은 고추 농가를 방문해 미숙한 손길이지만 고추모종 심기와 비료 살포 등의 작업에 매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근 열 세정과장은 "서툰 솜씨지만 농민들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딱한 사정에 놓인 농가를 조금이나마 돕게 돼 더욱 보람찬 일손 돕기였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16일~7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부안군보건소는 지역 주민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생하게 지역별로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비만 등), 만성질환 여부, 삶의 질 등 17개 영역 16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는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표본 추출로 선정된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8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해 1:1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선정 가구에는 가구선정통지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문 등을 우편 발송해 사전 안내하며, 조사 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한다.

부안군은 "이번 조사는 군민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외교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063-580-3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은봉기 기자

국영석 무소속 출마...완주군수 2파전 압축

유희태 행정·통합 입장 비판 "선민후당 신념으로 출사"

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장은 1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초월해 오롯이 완주군민만을 믿고, 완주군민과 함께 완주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 전 본부장의 이번 출마는 유희태 후보의 독선과 무능한 행정으로는 더 이상 완주의 발전은 없다라고 결론 짓고 당을 넘어선 '선민후당'의 신념으로



국영석 前 본부장

완주의 새로운 희망을 다시 쓰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완주군수 선거는 무소속 국영석 전)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장과 유희태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국 전 본부장은 "유희태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당선되고 보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유희태

후보에게 완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유희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심각한 도덕성 결여, 잇따른 사법리스크로 군정 중단 사태마저 우려된다"며 "완주에 필요한 리더로서의 자격 또한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국 전 본부장은 "점체된 지역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오고 싶은 완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완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친화 공모 선정

한국보육진흥원 공모사업 전국 138곳 중 7개 기관 선정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보육지원사업단)이 위탁 운영하는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복지자동차 공동 주관한 '2026년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한 Family Safety'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138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별 부모 유형과 특성에 맞춘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조성하고 긍정적 양육 가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약 1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남원시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비부모(임신 준비 및 출산 예정)를 위한 소모임 △영유아 자녀 부모 소모임 △아빠-자녀 놀이 프로그램 △우리동네 팝업놀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숲 체험, 목공 체험, 생태교육, 자연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폐장난감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부스 등을 '우리동네 팝업놀이터'와 연계 추진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영숙 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남원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 합파우 지방정원 임시 개장 정식 등록 절차 추진

남원시가 노암동 산10번지 일원에 조성한 '합파우 지방정원'을 임시 개장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선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합파우 지방정원은 주제정원과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곱빛나무, 에메랄드그린, 홍매화 등 다채로운 수목을 식재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임시 개장 기간에는 야간에도 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관 조명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저녁 시간대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임시 개장을 통해 시설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식 '지방정원'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개장을 통해 합파우 지방정원이 시민들의 일상 속 편안함의 습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취약아동 가정에 응급 케어 키트 보급

완주군이 5월 한 달 동안 의료접근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비상상비약 키트 지원과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는 '아이안심 응급케어키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삼비약 구비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키트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속 경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의약기관 미개설 읍면 거주 등 의료접근 취약 가정 아동 80명을 우선 선정해 아동통합사태관리사가 아동 가정에 비상상비약 키트를 직접 전달해 응급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필수서비스인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가정상비약 키트는 지역 약국 약사의 자문을 받아 효용성과 오남용 위험을 고려해 안전상비의약품 등 9종으로 구성됐으며, 삼비약 용도 및 소비기한 별도 표기를 통해 약품 오남용 방지 등 복약 안전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비상상비약 키트 지원을 위해 완주군 은혜약국(삼례읍 소재, 대표 양미연)이 파스를 전액 기탁했다. 은혜약국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선제 대응 총력

2026 첫 합동평가 보고회 개최 지난해 군부 1위 성과 이어가

순창군은 지난 12일 군 영성회의실에서 조광희 순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4월말 기준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2026년 합동평가 세부지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서간 협업을 위한 과제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표별 대응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실적 달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업 사무와 주요 국정·도정 시책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순창군 대상 평가지표는 정량 지표 67개, 정성지표 7개 등 총 74개 지표로, 군은 정량지표의 95% 수준인



<사진=순창군>

64개 지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체계적인 실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 합동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정량 지표 달성률 부문에서 미달성지표가 1개에 그쳐, 도내 군부 1위, 전체 시군 가운데 2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행정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조광희 순창군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전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지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예산과 조례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업무는 조기에 준비해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5월 '혈압 측정의 달' 고혈압 예방 홍보 강화

순창군이 세계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5월을 '혈압 측정의 달'로 지정하고,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신장질환 등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정상 혈압 기준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이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내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혈압 측정과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과 혈압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혈압 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예방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120·80보 걷기 워크숍 챌린지'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자신의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군민들이 혈압 측정을 생활화하고 고혈압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1인당 최대 2개 건강보험 적용 후 부담금 지원

완주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의치(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다. 단, 과거 보건소를 통해 의치, 보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최근 7년 이내 치과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시술받은 자는 대상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완전·부분의치(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되며, 틀니와 임플란트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보건소 상담 및 1차 구강검진을 거쳐 선정된 후, 관내 연계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휴시네마, 단돈 1천원으로 영화 본다

영화진흥위 관망료 지원 연계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완주휴시네마(이사장 유희태)가 1천원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13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계 중인 영화관 시장 회복과 국민 문화여가 활동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화 관람료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영화관람 비용이 7천원인 완주휴시네마의 경우 최소 부담액 1,000원만 지불하면 영화를 볼 수 있다. 온라인 예매는 1인당 2매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예매는 별도의 매수 제한 없이 예매 가능하다.

완주휴시네마는 약 4천여명의 관람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할인 행사는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현안·재난안전 5개 사업 '탄력'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추진

남원시가 2026년 상반기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3억 원 △남원 농업근로자 기숙사(동부권) 건립사업 3억 원 △남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억 원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 보강사업 3억 원 △남원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은 광한루

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해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남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동부권(인월·산내)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업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업 노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인근 미꾸리 양식단지에 공급해 자원 순환과 양식 에너지비용 절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 보강사업은 송

동면 세전리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해 농경지와 주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남원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사업은 통학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달 1일과 3일 최경식 시장과 이성호 부시장이 각각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원을 건의한 데 따른 결과로, 박희승 지역 국회의원과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끌어 낸 결실로 평가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돌입

소득하위 70%에 15만원 지급 18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완주군은 고유가·고물가 어려움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대상을 제외한 국민 70%가 대상이며 비수도권인 완주군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소득하위 70% 국민이다. 선정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소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차 지급 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첫 주(5.18~5.22)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완주사랑상품권(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인터넷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사랑상품권(카드)은 CHAK 앱을 통해 신청해 충전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완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형태로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은 완주군으로 제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고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완주사랑상품권(카드)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데 방문하기 전에 해당매장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온라인 쇼핑물, 대형마트, 백화점, 환금성 업종,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완주=김명곤기자

"3분 만에 마감" 순창 실랜드 교원 연수 큰 호응

서울대 협력 인생설계 연수 강의·힐링 결합 만족도 높아

순창군의 대표 힐링 공간인 실랜드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운영하는 전국 교원 대상 '2026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설계 직무연수'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10년 이내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은퇴 이후 삶을 미리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진행된 1기 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과 7월,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60명씩 총 240명의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기 연수는 접수 시작 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얻으며 현장 교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했다. 이는 단순한 직무연수를 넘어 휴식과 건강관리, 미래 설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순창군>

실제로, 실랜드의 치유 중심 시설과 순창의 청정 자연환경, 서울대학교의 전문 교육 콘텐츠가 결합된 점도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직무연수 학점 인정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강의와 체험, 휴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김치현 교수의 '허리 노화의 이해와 예방', 조비

룡 교수의 '건강백세 전략' 등 은퇴 이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강이 진행되며, 강선진 트레이닝과 족욕 체험 등 순창의 자연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무주군, 구천동 특구 소상공인 서비스 교육 진행

무주군은 13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구천동 특구 소상공인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구천동 관광특구 내 상가 및 사업체 종사자의 방문객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덕유지구 소상공인 30명이 참석해 서비스 전문성과 만족도 향상 교육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향(한국CSM인재개발원) 강사는 이 자리에서 사례 중심 강의 및 참여형 실습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상인들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손님 응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줘서 유익했다"라며 "무주구천동의 옛 명성이 우리 마음가짐과 실천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덕유지구 소상공인 대상 교육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배상정 전북관광협회 문화관광연구원장)되며, 매해 배방지구, 삼거리지구까지 3개 지구를 순회하며 소상공인 서비스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현장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플로리스트 과정 2기' 교육생 모집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원예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농업 역량강화 플로리스트 과정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군 농업기술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3월까지 운영된 1기 교육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큰 호응을 받았기에 이번 2기 과정에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참여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스테이블 센터피스 △ 초승달형 꽃꽂이 △ 생화 상틀리에 장식 등 다양한 플로리스트 실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장수군민이며 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20일까지 장수군청 통합예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료비 10만 원은 교육생이 부담해야 하며, 지난 1기 교육과 달리 현장접수와 이메일접수는 불가능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읍 주민 최락돈 씨, 이웃돕기 성금 108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 주민 최락돈 씨(전 무주군청 비서실장, 전 무주군립요양병원 사회사업실장)가 13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08만 원을 기탁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최락돈 씨는 "성금은 무주군립요양병원에서 일하며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직에서도, 요양병원에서도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시간도 지역발전과 이웃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이날 받은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주요 농업시설 현장점검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운영 상황·현장 의견 청취

진안군은 지난 12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영농 지원체계 점검을 위해 주요 농업시설을 방문하고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사진)이 나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술 지원과 생산·가공·유통 기반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먼저 부귀면 일원에서 '기존 하우스 활용 폭과 고실 수경재



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쪽파 재배단지를 찾아 작황과 재배 현황을 살피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군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농약 분석 관련 시설과 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해 과학영농 지원체계와 친환경 농업 기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찾아 영농 편의 지원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운영 현황을 살폈으며,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

과 양묘장에서는 미래농업 대응 기반과 안정적인 영농 지원 체계를 확인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농업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기술 지원, 가공, 미래농업 기반까지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주요 농업 현장과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사업 백이천 하천 정비사업 투입

임실군은 지역 현안 해결과 재단 예방에 투입될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올 상반기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분야 1개 사업 9억원과 재단안전 분야 1개 사업 6억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사업 9억원 △백이천 지

방하천 정비사업 6억원 등이다.

"임실군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인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와 복합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One-Stop 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위험이 상존해 온 정음면 향교리 일대의 백이천 지방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정

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버스내 심리검사상담 진행 군민 정신건강 점검·위로 제공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노승무)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며 군민 정신건강 돌보기에 나섰다.

센터는 장제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계남면, 계북면, 변암면 일원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운영 내용은 스트레스 측정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 △자살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마음안심버스 내부에는 정신건강 검진 장비가 탑재돼



<사진=장수군>

장소 제약 없이 체계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1대 1 맞춤형 상담도 즉시 진행되고 상담에서는 주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연계

서비스 안내, 자살예방 캠페인 및 지원사업 홍보 등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승무 센터장은 "앞으로도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군민이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공중화장실 이용 안심하고 하세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위생 점검 안전한 공중보건환경 구축

무주군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공중화장실 20여 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쾌적한 위생 상태와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보건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2일에는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무주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등 8명이 함께 했다.

점검단은 이날 읍면 전통시장을 비롯해 구천동관광특구 다목적광장 등 주요 관광지 화장실 내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와 장애인 화장실 시설물을 확인하고 비상벨을 비롯한 환풍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화장실 청결 상태와 개수대 및 변기 시설 고장 유무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불법 촬영 의심 물체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 천장과 벽체, 문고리, 화장지 걸이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공공시설 및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점검에서는 불법 촬영기기, 의심 흔적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불법 촬영기기 발견 시에는 현

장보존 후 무주경찰서에 신고하고 의심 흔적(흠집, 구멍)이 있는 경우엔 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신속한 보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안내판 위치 및 표시 적절성도 확인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5월 황금연휴에 관광인파 행렬

1일~5일 17만여 관광객 방문 5월 28일엔 장미축제 개최

임실군이 5월초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관광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군에 따르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평일이었던 4일에도 연차를 활용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전체가 활기로 가득찼다.

실제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2026 임실N팻스타'에 8만 7천여명, '임실치즈테마파크'에 2만 5천여명,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에 5만 6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총 16만 8천여명의 관광객이 임실을 찾으며 임실 구석구석이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연휴기간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시설, 농특산물 판매수익은 총 2억7천만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역시 상춘객들로 붐볐다.

현재, 옥정호 일대에는 본격적으로 개화한 꽃잔디가 대지를 분홍빛 윤채로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고, 선명한 철쭉까지 더해져 봄 정취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관광 열기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임실N장미축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함께 상반기 축제 분위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천만 관광객 시대' 실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대피·심폐소생술 등 실전 중심 훈련

장수군은 12일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행동절차와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2026년 5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복합·다양화되는 안보환경과 재난 양상에 맞춰 비상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공직자들의 초동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오는 8월 예정된 전 국민 참여 훈련에 앞서 행정 대비 태세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분청과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해 대피로 점검과 대피 장소별 임무 숙달을 집중점검 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필수 업무 부서는 정상 운영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대피장소 집결 이후에는 심폐소생술(CPR)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을 병행 실시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운영

"기다림은 줄이고, 독서는 더 가까이"

임실군은 군민들의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도서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책이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이다.

임실군은 기존 주 1회(목) 운영하던 방식에서 주 2회(화·목)으로 확대하여 자료 이동 주기를 단축하여 도서 제공 속도를 높이고, 오수반려누리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한 스마트도서관을 상호대차 서비스 대상에 추가하여 운영된다.

임실군은 군립도서관(2개관), 공립작은도서관(4개관), 스마트도서관(1개관) 등 총 7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스마트폰 앱'으로 과수화상병 원천 차단

데이터 기반예찰방제체계 구축

진안군은 과수 농가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을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예찰 시스템을 본격 활용한다. 최근 과수화상병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팜식스플러스'를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방제 체계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이다. 기존 서류 중심의 예찰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조사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안군은 효율적인 예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4명)과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예찰방제단'을 상시 운영하며, 관내 사과·배 과수원의 의심 증상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

현장에 투입된 예찰 요원들은 앱을 활용해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관리자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어, 군 전체의 화상병 발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방제 지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역 속도가 빠른 화상병을 초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방제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어르신께 꽃 선물

완주 시니어클럽이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클럽 관계자들은 일자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일자리 참여자 중 한 어르신은 “작은 꽃 한 송이지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김태권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구암동, 착한가게 48~49호점 탄생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수현·김희란)는 13일 이웃을 향한 정직한 나눔을 약속한 신규 착한가게 2곳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

이번에 가입한 착한가게는 △가족에게주는 김(대표 이영희) △해피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조순옥)이다.

새롭게 나눔 행렬에 합류한 ‘가족에게주는 김’ 이영희 대표는 “상호명처럼 우리 이웃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커다란 응원의 메시지로 닿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나눔의 뜻을 밝힌 ‘해피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조순옥 센터장은 “매일 어르신들을 마주하며 더 깊은 나눔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작은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 농가 사랑하루한식뷔페, 어르신께 식사권 기탁

5천만원 상당 이용권 전달 어르신들 건강한 식사대접

익산시에서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시는 13일 어양동에 있는 ‘농가 사랑하루한식뷔페(대표 하양규·이종민)’가 5,000만 원 상당의 식사이용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고령층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식사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재가노인복지 시설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에 전달돼, 시설·기관 이용 노인들은 식사권을 가지고 음식점을 방문하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30일부터 본격 운영돼 하루 평균 50~6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1,3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아울러 각 시설과 기관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과 식사권 전달뿐만 아니라 이동 지원 및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사랑하루한식뷔페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 건강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백구면지사협, 반려식물 나눔사업 추진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강인)가 특화사업으로 ‘함께해요~’ 반려식물 나눔사업을 추진, 취약계층 어르신 70세대에 반려식물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홀로 생활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반려식물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사항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따뜻한 안부를 살폈다.

반려식물은 어르신들이 식물을 돌보며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생필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이강인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무주 구천동 지역 단체들, 요양병원에 310만원 기탁

무주군립요양병원에 전달

무주노인회구천동분회(회장 최태호), 구천동관광특구연합회(회장 박우을), 구천동 7개 마을 이장단, 무주스키엔탈협회(회장 박한규), 구천동농어촌활성화위원회(위원장 양준모), 백련사신도회(회장 오용선) 등 실천면 지역 단체들이 지난 12일 무주군립요양병원에 성금 310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권창영 무주군립요양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권도훈 원장 등 병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최태호 무주노인회구천동분회 회장은 “군립요양병원이 생겨서 얼마나 든든하지 모른다”라며 “기부금은 입원 환자들의 복지와 의료서비스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구천동 지역 단체들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김제 광활면, 딸기 농가 일손 돕기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13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농가를 찾아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는 광활면 직원 8명이 은파리 소재 청년 농가를 방문해 딸기 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작업(노쇠 잎 제거) 작업을 함께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지원은 모내기 준비 등으로 농가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것으로, 딸기 스마트팜 청년농가에 ‘적기 영농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손순미 광활면장은 “농업 현장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임실 덕치면 생태환경 주부모임 봉사활동 시작

임실군 덕치면 주부들로 구성된 생태환경모임에 주부들이 매주마다 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 내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과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갖을 기회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실천 활동으로 생태환경 관할 및 환경정

화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덕치면 주부모임 회원들은 섬진강 자연거길 주변을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펼치며 환경 오염의 실태를 체감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덕치면 생태환경 주부모임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섬진강 하류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쉽없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부안 백산면 '만복성', 착한가게 동참

부안군 백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선이, 민간위원장 정재원)는 지난 12일 ‘만복성’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와 중·소규모 소상공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이번 착한가게로 지정된 ‘만복성’은 백산면 제4호 착한가게로 참여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만복성 이형남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나누고 싶었고,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게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1 손씻기**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기
- 2 익혀먹기**
육류, 생선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 3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一事一言〉



구상유취(口尚乳臭), 입으로 방귀를 끼는 자들의 시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구상유취라는 말이 있다. 입에서 젖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할 때 이를 두고 젖비린내 난다고 했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요즘 우리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의 그 용어보다 "말이야? 방귀야?" 하는 말을 여기저기서 더 자주 듣는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비웃을 때 쓰는 표현이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의식 세계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말은 자신의 의식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인간의 수단이며, 귀로 듣게 되는 전달 체계다. 한편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즉 '얼굴'이다. 한국인의 얼, 얼이란 정신세계를 의미한다면 얼굴은 정신의 결과 모양새인 셈이다.

민족의 얼. 예전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던 용어였다. 한민족의 얼은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는 한의 정서와 은근함, 끈기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문화화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제 배탈의 얼이나 한의 정서 같은 말도 어색하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자신의 얼굴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형상화된 외적 드러남이다. 그래서 예부터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인 내면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얼굴 못지않게 그가 사용하는 언어 또한 자신의 모습을 외부로 표출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표자가, 그의 외적 형태이든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써대는 글이든, 전 세계를 향해 눈을 감고 난사하듯 갈겨대고 있는 꼴이다.

멀지 않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앓은뱅이 주술사가 합작해 나라를 어지럽힌 적이 있었다. 어떤 이는 그를 가리켜 "어린아이가 총을 쏜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던가. 그는 자신의 자유로움을 스스로 결박하는 꼴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자가 구상유취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의 또 다른 미래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무릇 입을 말을 하고 음식을 삼키는 중요한 부위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입으로 방귀를 끼거나 배설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입과 항문은 하나의 관으로 이어진 소화기 계통이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내려가고, 심이 지장을 통해 소화 분비가 이뤄진다. 이후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대장에서는 수분이 흡수된 뒤 남은 잉여물이 배설된다.

그런데 입에서 방귀를 끼고 똥을 내뱉

는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다. 구상유취라는 고상한 표현조차 그런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입에서 난사하듯 뿜어내는 방귀와 배설물을 쏟아내는 듯한 작금의 모습은 현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라의 본모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 글자를 딴 MAGA. 그들이 외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창한 구호는 유럽 시위대에 의해 "Make America Go Away", 즉 "미국은 집에 가라"는 조롱으로 비틀어지고 있다. 이제 초강대국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질린 세계 여러 나라가 그와 그의 나라에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거창하고 교만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은 자국 안에서조차 메아리가 되고 있다. 그의 막무가내식 아집과 독선, 세상을 돈의 가치로만 바라보는 신종 제국의 풍경을 낯설고도 불안하다. 세상의 평지풍파를 잠재우려면 그런 꼴을 오래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주·관상가들은 그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한때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관을 선물로 받아 정말 기뻐하며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머리에 써볼 정도로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그의 그 왕관이 어떤 왕관이었던가. 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죽은 왕의 왕관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

사설

시민 불편 외면한 완산수영장, 공공시설 맞나

전주시 완산수영장을 둘러싼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샤워실 악취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헤어드라이기와 탈수기 부족, 위생 문제까지 제기되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체육시설이 시민 건강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안기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특히 문제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나 일시적 혼잡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용객들은 수영이 끝나는 시간마다 드라이기 사용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하고, 일부는 개인 드라이기를 직접 들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탈수기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최소한의 쾌적함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시설은 단순히 문만 열어놓는다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 완산수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시스템이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반복되는 민원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 민원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용자 수 대비 비품 적정 수량, 청소·위생 관리 체계, 시설 유지 예산 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시설이라면 최소한 시민이 불쾌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공시설의 수준은 결국 행정의 수준이다.

독자투고

심폐소생술, 소방관이 아닌 가족에게 가장 먼저 쓰는 기술



우리는 흔히 심폐소생술을 TV 뉴스나 영화 속 한 장면, 혹은 길거리에서 쓰러진 낯선 행인을 돕는 '전문적인 기술'로 생각하곤 합니다.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소방관이나 의료진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은 훨씬 더 가깝고 절실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 1위는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이 가정의 거실, 안방, 주방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름 모를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아침 함께 식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내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을 막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에 불과합니다. 119 신고 접수 후 구급차가 아무리 신속하게 달려가도, 교통 상황과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면 현장 도착까지 4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소방서의 골든타임은 사이렌을 울리며 시작되

지만, 환자의 진짜 골든타임은 쓰러진 그 찰나에 시작됩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현장에 있는 '가족'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은 "괜히 손을 댔다가 상황을 악화시킬까 봐 겁이 난다"고 말 씀하십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압박'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춘 심장을 대신해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는 행위는 생명의 시계태엽을 억지 로라도 돌려주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설령 그 손길이 서툴고 박자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가족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담긴 그 압박이 환자의 뇌로 혈액을 보내고 생명의 불꽃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우리 가족을 위한 '필수 상비약'처럼 마음속에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소방서에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가슴 압박 소생술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공 호흡 없이도 오직 당신의 두 손만으로 가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방서의 문을 두드리거나 교육 영상을 찾아보는 작은 실천이 우리 집 거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응급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교 고선화

오늘의시

연륜(年輪) / 김기림

무너지는 꽃이피리처럼
휘날려 날 아래 걸리는
서른 나문 해아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굵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시인 약력 : 1908년 함북 성진 출생. 일본 동북제대 영문과 졸업. 1931년 '신동아'에 '고대(苦待)', '날개만 돋치면'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33년 구인회에 가입하고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의 이론가이자 모더니즘 시론을 실제 창작에 실험했으며 광복 후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곧 전향했다. 시집으로 장시의 '기상도'와 '태양풍속' 등은 일제 강점기에 출간되고 광복 이후 '바다와 나비', '새노래' 등을 간행했다. 저서로 '시론', '시의 이해', '문장론 신강'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047	부안지국 010-7247-3047	부안지국 010-7247-30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발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미래를 향해, 진실만을 보도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미나리에 미(美)친 청년, 문창희가 그리는 초록빛 미래

전주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사그라지는 경계선, 빌딩 숲의 소음 대신 바람에 실려 온 알싸한 향기가 먼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13,000명의 광활한 초록 바다, 그곳엔 미나리에 인생을 걸고 '미(美)친 청년 문창희 대표의 삶이 푸르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서면 마중 나오는 싱그러운 향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 곳에는, 사방으로 펼쳐진 푸른 물결 사이로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그가 서 있습니다. 바로 4년 전, 운명처럼 미나리 논으로 뛰어든 '창희나리'의 주인공입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홍보팀>



아버지의 못다 한 꿈, 미나리로 되워내다

문 대표에게 농업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거친 손등을 보며 자라온 그에게 미나리 밭은 놀이터이자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시며 가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남매 중 아들이었던 그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문 대표는 "농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정직한 일입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로 미나리의 마음을 알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의 눈빛에는 서툰 초보 농군의 당혹감 대신, 13,000평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책임지는 젊은 농부의 단단한 진심이 서려 있습니다.

물관리의 예술 그리고 '깨끗한 영랑의 사투'

미나리 농사는 흔히 '물관리의 예술'이라 불립니다. 전주 미나리는 눈에 물을 가득 가득 채워 재배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잎이 무르고 갈색으로 변하는 '외사락 병'이 찾아옵니다.

처방약도 없어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앓아가는 이 무서운 불청객을 막기 위해 문 대표는 매일 새벽 미나리의 상태를 살피는 고단한 일상을 자처합니다.

그는 전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우스 시설에 그물망을 도입해 물을 적게 가두면서도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고, 지하수로 깨끗하게 세척해 포장까지 책임지는 철저한 위

생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라는 가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다

청년 농부의 앞날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습니다. 땅을 구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순간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않는 대신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집처럼 드나들며 지식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제 문 대표의 시선은 더 먼 미래를 향합니다. 인력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의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해 수경 양액재배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기후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1년 내내 균등한 고품질 미나리를 생산해내겠다는 그의 도전은 이미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4-H, 함께 걸기에 외롭지 않은 길

외로운 영농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전주시 4-H 연합회 동료들이었습니다. 지·덕·노·체(Head·Heart·Hands·Health)의 정신 아래 모인 청년 농부들과 소통하며 그는 '함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비록 농업 중심지가 아닌 도심형 농업을 하는 전주지만,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기에 그는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농업 멘토인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지만, 미나리가 쑥쑥 자라나 무사히 출하될 때 느끼는 보람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농업, 준비된 자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

귀농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문 대표는 다정한 격려와 함께 빠 있는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농사나 지어볼까"라는 막연한 도피처로 농업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이유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대한민국 농업이라는 세계는 여러분을 언제나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향후 5년, 10년 뒤 문 대표는 미나리 가공 사업인 숙취 해소 음료 '깨나리'를 안착시키고, 스마트팜을 통해 가장 위생적이고 향긋한 미나리를 전 국민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주의 푸른 미나리 논 위로, 한 청년의 꿈이 싱그러운 향기가 되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